

금년 제 나이가 우리 나이로 60세가 되었습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일들이 엇그제 일 같은데 벌써 젊음은  
소리없이 가버린 듯 합니다.  
정말 쏘살같이 지나가 버린 아까운 시간들 입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다고  
생각됩니다. 불명 자유주의 국가인 것은 확실한데,  
소위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가 해소될 기미는 잘 보이지 않는군요.  
최소한 자기가 일하고 노력한 만큼 그 대가가 돌아와야 정상일텐데  
그것 또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더욱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는 도무지 해결의 실마리조차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TV등 방송매체에서는 경제문제를 희화화(우스개소리)해서  
출연자들이 한마디씩 하는데, 흙수저인 사람들에게는 결코  
웃을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일한만큼 소득이 돌아오지  
않으면 소위 '열정페이'라느니 '재능기부'라느니하고  
우스개소리를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처럼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빈부격차가 심하고,  
부자들은 대를 이어 금수저로 살아가는 마당에,  
흙수저인 사람들은 어떻게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22조 라는 엄청난 돈(세금)을 들여 4대강을 엉망으로  
파괴시켜놓은 이 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책임을 묻는 말 한마디 못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지기반인 노년층을 등에 업고,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지지자들에게도 별다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친박, 비박 하면서 때아닌 박태령만 하던 새누리당이  
2016년 4월 13일 총선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고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일명 '폭탄돌리기'에만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처럼 많고 깨끗한 나라가 되지 못하고  
'기득권 지키기'에만 올인하는 걸까요?

국민들이 뽑아준 '선량'이라는 국회의원들은  
세금으로 해외 연수(?)를 그렇게 잘 다녀들 오시면서  
도대체 무엇을 보고 오시는 겁니까?

코 앞에 있는 북한에서는, 동포들이 굶어죽어가고 있는데도  
핵개발에만 열을 올리면서 위협하고 있는데,

자유 민주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왜 선진국들처럼 살지 못하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하지 못하고 '갑질'만 일삼고  
있는 것일까요?

### Human & Memory Archives

공산주의 중에서도 가장 악랄하게 주민들을 학대하는  
북한과는 대화가 되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악랄한 북한공산주의를 몸으로 겪으신 어르신들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면, 남아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공산주의자들을, 그들의 본성을 제대로 파악이나 할지  
의문입니다.

북한과의 경제 협력, 대화도 필요하지만  
먼저 북한공산주의에 대해 확실히 파악을 하고서  
나머지 일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우리 국민들을 깨우치기 위해 노력하셨던  
 도산 안창호 선생이나 그 밖에 선견지명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국민의식개조'를 주장하셨던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에도 그러한 민족지도자들이 올바른 말을 하고  
 국민들은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날로 더욱 새롭고 올바르게  
 살아갈 때만이 우리에게 희망찬 미래가 다가올 것입니다.

속담에 있는 것처럼 '모든 일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공짜는 없고, 또 공짜를 바라서도 안되겠지요.

선진국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우리도 그들처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  
 부정부패가 용납되지 않는 사회, 국가가 가난한 자, 소외된 자의  
 편에 서서 일할 때, 우리도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어보신 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궁금하군요.  
 "너나 잘하시오"라거나 "네가 그렇게 해 보아라"라는 등  
 여러 의견이 있으시겠지요.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 봄날에 님두리 삼아 써보았습니다.  
 구약성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의인(義人)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정말로 의인 한 사람이 아찔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두서없는 글이지만 새 봄을 맞아 한번 써보았습니다!

(2016년 5월 12일 김재천 씀)